

한국어의 단어형성과 의미고찰*

강진식

(원광대학교)

Kang, Jinsik. 1999 A Study on Word-formation and its Meaning in Korean Language. *Linguistics* 7-3, 197-216. This thesis treats of the word-formation of Korean language, "noun+verb+affix '—이'" and its semantic structure, presenting as samples "물굽이" and "땀받이" the typical forms.

It is judged that such a word-formation is formed out of [[물굽][이]], [[땀받][이]], that is, a derivative from a preceding compound root combined with an affix, to which a syntactical rule is applied. That is, it gets through a syntactical process; first it forms a phrase form, and then, the phrase form will be transformed into a compound word, and then, again settled as a derivative in a sentence structure.

The merit to view the word-formation as above is that it supports that [굽이], [받이] and so on have no independence, and helps eliminate the involved process such as re-analysis or affix movement. It also justifies that the meaning of the derivative is formed according to the syntactical process. For the formation of derivatives are in a large measure individual, and this provides the justification for the intervening sound to preclude breaking the form. (Wonkwang University)

1. 문제제기

본고는 현대 국어의 파생어형성에 있어 그 형태 구성과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 중에서도 '명사/부사어+동사+접미사'의 구성이 합성어인가¹⁾ 아니면 파생어인가의 논의도 분분했으므로 그 구조층위의 형성과정과 그에 따른 의미는 어떻게 도출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국어의 단어형성은 첨가어의 특성에 따라 다른 나라 언어에 비하여 파생접사가 매우 발달하였으며 여기(base)에 파생접사가 통합되어 새로운 단어

* 이 논문은 1998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1) 이는 복합어를 하위분류하여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하고 전자는 '어기+어기'로 이루어지는 단어를 일컫는다.

인 파생어를 형성하며 그 용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명사를 형성하는 파생접사 '-이, -음, -기'를 중심으로 이에 선행하는 '명사/부사+동사'의 형성이 통사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사론적 대상인지 아니면 형태론적으로 어휘부내에서 형성되는 합성동사 어간인지 그 구분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이는 그 형성소 자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여 형성된 파생명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귀중한 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대 언어학은 규칙보다는 원리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단어형성에 있어서 통사론적 원리 접근이 형태론에서도 적용된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파생어형성 연구는 선행어기에 파생접사가 첨가되어 순수한 형태적 단어를 형성하는 형태적 접사와 선행어기가 XP²⁾인 구(Phrase)에 통합되는 통사적 접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태적 파생접사는 어휘고도계약(lexical island constraint)의 지배를 받지만 통사적 파생접사나 굴절 접사는 어휘고도계약을 받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근래에는 통사론적 규칙과 형태론적 규칙을 강어휘론가설(strong lexicalist hypothesis)³⁾ 아래 일원화시키려는 논의가 있다. 강어휘론 가설은 파생과 굴절 현상이 어휘부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러한 양자의 구분 논의는 접미사에 선행하는 구성성분으로 합성어근을 갖는 경우에는 단어형성의 특성이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접미사를 중심으로 이에 선행하는 '명사/부사+동사'의 2항적 합성 어근이 결합하여 선행어기가 되어 파생어가 형성되는 과정이란 파생적 특징과 굴절적 특징을 아울러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파생과 굴절이 어휘부에서 이루어지면서 파생은 단어형성에 관련되어 나타나고 굴절은 통사부와 관련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생성문법론에서 통사부는 문법이론의 핵심부로서 음운부와 의미부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통사부는 기저부문과 변형부문으로 나뉘지며

2) 본고에서의 XP는 NP와 VP를 의미한다.

3) 이에 대하여 상대적인 약어휘론 가설(weak lexicalist hypothesis)이 있다. 이는 어휘고도 제약(lexical island constraint)을 받아 형태적 파생접사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파생어를 말한다. 접미사의 '어휘고도 제약'이란 파생어를 이루는 접미사적인 요소는 독자적으로 통사적인 구성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어휘고도 계약을 받는 파생접사의 최대투사범주는 단어이며 구나 문장과 같은 통사적인 구성으로 확장될 수 없는 제약이다. 약어휘론가설은 결국 파생어 형성은 어휘부에서 일어나고 굴절은 통사부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전자에 어휘부와 범주부가 있어 심층구조를 이루는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통사부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본고는 단어형성의 기본 원리를 파생어의 선·후행 요소 어느 한 부분에서 서가 아니라 '단어형성'이라는 통사범주 전체적인 면에서 고찰해보고 나아가 이들 파생어의 선후행요소의 통합관계, 접미사의 기능, 선행어기의 의미 등을 살펴본 후 명사화접미사 '-이, -음, -기'와 이에 선행하는 '명사/부사+동사'의 2항적 합성어근의 결합관계를 살핌으로써 '물굽이' <강물이 구부러져 흐르는 곳> 형과 '땀받이' <땀을 받아내려고 끼입는 속옷> 형을 중심으로 파생명사 형성의 특성과 의미를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명사/부사어+동사+접사(-이)'의 단어형성 구조

명사화 접미사 '-이, -음, -기'의 선행 성분이 2항적 합성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명사의⁴⁾ 형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렇게 형성된 파생명사의 의미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파생접사 '-이, -음, -기'가 선행어기와 통합되어 형성된 파생명사 유형은 크게 넷으로 갈린다.

(1) 가. 명사+자동사

- ㄱ. 물굽이, 움돋이, 해돋이, 첫닭울이, 밀넙이, 옆넙이, 산굽이, 목곶이.
- ㄴ. 길갈림, 산울림, 땅울림, 사람됨.
- ㄷ. 피들기, 씨나기, 얼뜨기, 파도치기, 해뜨기, 움트기

나. 명사+타동사

- ㄱ. 땀받이, 옷놀이, 옷걸이, 바람막이, 고기잡이, 신문팔이, 가슴앓이, 마개뽑이, 돈벌이, 참새구이, 먼지떨이, 젓먹이, 재떨이, 보막이, 책꽂이, 봄맞이, 털갈이, 꽃꽂이, 뜰팔이, 물받이, 짐박이, 짐받이, 냄마주이, 때밀이, 구두닦이.

4) 이에 해당하는 '물굽이, 길갈림, 피들기, 달맞이, 끝맺음, 널뛰기, 감옥살이, 발걸음, 같이가기, 손톱묶음, 앞차기' 등의 단어형성을 본고에서는 파생명사로 간주하고 파생접미사에 선행하는 구성성분인 합성어근 '물굽-, 길갈리-, 피들-, ...' 등의 구성에도 관심을 갖는다.

- ㄴ. 끝맺음, 몸가짐, 품값음, 말막음, 낮가림, 밤샘, 고기볶음, 바늘쌈, 눈가림, 마음가짐, 몸놀림, 발돋움, 탈바꿈.
- ㄷ. 널뛰기, 돈내기, 본보기, 글짓기, 모내기, 줄다리기, 줄넘기, 김매기, 짓매기, 보물찾기, 집짓기, 줄타기, 창던지기, 허리꺾기, 뺨이치기.

(2) 가. 부사어+자동사

- ㄱ. 감옥살이, 집들이, 머슴살이, 하루살이, 셋방살이, 시집살이.
- ㄴ. 발걸음, 앞처짐, 눈겨름, 자리싸움, 토끼잠, 억지웃음.
- ㄷ. 같이가기, 높이뛰기, 아래닿기, 마주나기.

나. 부사어+타동사

- ㄱ. 가을건이, 가을같이, 벽걸이, 개구멍받이, 명석말이, 귀걸이, 목걸이, 마구잡이.
- ㄴ. 손톱목음, 가을뿌림, 보쌈, 뒤넘김, 눈겨름, 말싸움.
- ㄷ. 앞차기, 멀리보기, 전내기, 가을심기.⁵⁾

(1.가,나)와 (2.가,나)의 예시들은 통사적 합성동사에 파생접미사 '-이, -음, -기'가 통합됨으로써 명사로 파생된 것이다. (1.가)의 '명사+동사'는 단어간의 통합을 표시한 것이지만 실상은 '주어+서술어'의 구조로 된 '물굽-, 움돋-, 해돋-...'에 접미사 '-이'가 붙은 것이다. 접미사의 선택조건은 '길이, 깊이, 살이, 떨이, 풀이' 등 합성어근이 아닌 단일어근의 파생법 그것과 같다. (1.나)는 '목적어+타동사'의 구조로 된 합성어근 '땀받-, 달맞-, 옷늘-, 옷걸-, ...'에 접미사 '-이'가 통합된 것이다. (2.가)는 '부사어+자동서술어'의 구조이다. '감옥살이'는 '감옥(에) 살다'에서 부사격조사의 소거로 '감옥살-'이란 합성어근에 파생접사 '-이'가 결합되었다고 생각된다. '집들이'는 '(새로운) 집으로 (옮기어) 들어가다'에서 합성어근 '집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것이다. (2.나)는 '부사어+타동서술어'의 구조로 된 것이다. '가을건이'는 '가을

5) 우리말 역순사전(유재원 : 1985, 정음사)에는 '-이, -음, -기'로 끝나는 단어가 '-이 1498개, -음 151개, -기 848개'가 있다. 물론 그 중에는 파생어가 아닌 것도 들어있기는 하나 대부분 파생어에 속하는 것들이다. 또한 '-이, -음, -기'에 선행하는 어기가 2항의 합성어근이 아닌 것도 있기는 하나 이러한 통계숫자는 '-이, -음, -기' 파생접미사가 생산적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에 (곡식을) 건다'에서 합성어근 '가을건-'이 형성되고 여기에 접미사 '-이'가 통합된 것으로 본다. '앞차기'도 '앞으로 (무엇을) 차다'에서 '앞차-'라는 합성어근에 접미사 '-기'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결국 (1.가,나) (2.가,나)는 합성동사가 된 합성어근으로부터 파생법에 의하여 다시 파생되는 과정을 거쳐 파생명사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파생명사의 유형중에서 본고에서는 (1.가)형인 '주어+자동사+접사'(물굽이)와 (1.나)형인 '목적어+타동사+접사'(땀받이)의 형성과정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1.가)형의 '물굽이'로 대표되는 단어형성에 대하여 일차적인 IC분석 기준이 '물굽-이'인지 아니면 '물-굽이'인지를 살펴보자. 기존논의의 대부분은 이러한 구조분석이 주된 논의였다.⁶⁾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물굽-이'로 분석되어 파생어가 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1.가) '물굽이'형에 대하여 기존논의의 주장이 파생어 (물굽-이)와 합성어(물-굽이)로 갈리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일면 타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물굽이'의 일차적인 구조분석을 파생어로 보는 것은 접미사의 선행요소를 합성어근 '물굽-'으로 간주하고 이 합성어근은 '물이 굽다→물 굽다→물 굽-->물굽-'으로 합성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굽-이'의 선행성분은 합성어로서 이는 문장 형식에서 통사적 절차를 거쳐 구구조로, 구구조에서 다시 합성어로 굳어진다고 본 것이다. 결국 합성어는 기저구조에서 일정한 통사적 절차를 거쳐 형성된다는 가설을 적용한 셈이다.

(3) '개념구조→문장구조→구구조→합성어'의 과정을 거쳐 합성어는 생성된다.⁷⁾

이렇게 하여 형성된 합성어가 명사파생접미사 '-이'와 통합되어 결국 파생법에 의한 파생어 형성의 절차를 밟아 '물굽이'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물굽이'형을 '물-굽이'의 합성어로 보는 견해는 위와는 다르다. 이

6) '물굽이'형을 직접구성성분으로 분석한 유형으로 '물굽-이'의 파생어로 본 것은 김계곤(1969), 허 웅(1975), 송철의(1990) 등이고 '물-굽이'의 합성어로 처리한 것은 이익섭(1965), 성기철(1969), 유목상(1976), 이석주(1987) 등을 들 수 있다.

7) Chafe (1970:28-29),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익섭(1965)은 ‘물-굽이’로 분석하여 이를 합성어(그의 용어로는 복합어)로 보면서 후행요소 ‘굽이’는 이미 명사로 굳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⁸⁾ 그러나 ‘시집-살이’, ‘고기-잡이’에서의 후행요소 ‘살이, 잡이’는 그가 시인한 것처럼 단독으로 단어노릇하는 일이 없다. 다만 다른 합성어에서도 동일한 외적 분포(external distribution)로 출현될 뿐이다.⁹⁾

우리의 논의에서는 ‘명사+자동사+접사’(물굽이)형과 ‘명사+타동사+접사’(땀받이)형을 파생어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러한 단어형성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자.

우리는 ‘물굽이’형이 ‘물굽-이’로 분석된다고 전제했으므로 접미사 ‘-이’의 선행요소가 어떻게 합성어근 ‘물굽-’으로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물굽이’형이 ‘물굽-이’ 아니면 ‘물-굽이’로 분석된다고 보아 인위적인 분석을 전체해 놓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설명을 붙이면 앞서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느쪽으로 분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 만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형태론이 인위적인 분류학이 아니라 단어형성에서도 통사론이 전제된다고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형태론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형태소의 확인과 더불어 형태소들이 이루는 형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행어근이 ‘물굽-’처럼 합성어근으로 이루어진 것에서는 이러한 요소간의 관련과 다른 형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것들이 통사론적 성격을 강하게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물굽-’을 통사론적 합성어근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형태소의 결합이 아무리 개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형태론적인 영역의 구성은 결국 통사론적인 구성원리와 같다고 볼 수가 있다. 형태론적 어근이 하나의 독립된 성분으로서의 통사론적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적으로 보면 형태소 자체에 독립성과 같은 것이 있어서 이들의 통합은 통사론적 질서 속에서 들어 있는 것이 아

8) 이익섭(1965)은 IC분석의 기준을 (1)의미와의 관련성 (2)보다 작은 단위에 의한 대치성 (3)언어 전 구조에 의한 지원도 등을 주축으로 삼는다고 하고 이러한 분석의 예로서 ‘밥-벌이, 옷-놀이, 병정-놀이, 뱃-놀이, 닭-구이, 더덕-구이, 사이-갈이, 산-굽이, 쇠-먹이, 말-먹이’ 등을 들고 있다.

9) 합성어의 후행요소 ‘살이’, ‘잡이’가 단독으로 단어가 되지 못한다는 예로서 ‘머슴-살이, 고용-살이, 육-살이, 처가-살이, 타관-살이, 신점-살이, 하루살이 ; 말-잡이, 바람-잡이, 덜미-잡이, 손-잡이, 칼-잡이, 막대-잡이, 부채-잡이, 들-잡이, 들-잡이, 왼손-잡이’ 등을 들어 보았다.(이익섭, 1965)

닌가하고 생각되는 것이다. '미닫이, 여닫이, 꺾꽂이, 오가다, 검푸르다, 넘어가다, 내려오다' 등의 선행성분 '밀-, 열-, 꺾-, 오-, 검-, 넘-, 내리-' 등을 이해하는 것은 '등근 달, 빨리 달리다' 와 같은 통사범주들이 결합된 구구조가 확연히 그 기능을 들어내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합성어근에서 형태소들의 통합 방법도 이와 같은 통사론적 접근 방식을 통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제 단어형성 원리를 원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생각해 보기로 한다. 새로운 단어가 형성될 때에는 새로운 사물이 생기거나 새 제도가 나타나면 새로운 개념을 성립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알맞는 신어가 형성하게 된다. 이미 있었던 개념이나 표현력이 감소되면, 다시 말하면 기존의 표현 단어는 그대로 있으나 그 단어의 내포가 늘어나게 되면 이미 있던 단어를 가지고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여 그것을 보충하거나 신선한 새맛을 지닌 새 단어가 생기게 된다.

새 단어를 형성시키는 방법에는 새로운 단어수를 늘리기도 하지만 단어간의 결합, 어근끼리의 결합, 접사의 첨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새 단어가 형성되게 된다. 그러므로 단어형성이란 단어창조, 단어형성, 단어조립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 된다.

신어 창조를 재료면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어근(root)을 창조하는 경우와 이미 있는 말을 재료로 삼아 만든 경우로 양분할 수 있다.

이미 있던 말을 재료로 한 것에는 어기(어근, 어간, 단어)끼리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나 접사가 첨가됨으로써 형성되는 파생어가 제일 많은 것은 우리말의 첨가어적 특질이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사+자·타동사+접미사'(물굽이, 땀받이)에서 접미사에 선행된 합성어근이 '물굽-, 땀받-'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먼저 형성되는 것은 형태론에서의 통사론적 절차에 의한 것이 확고 전술했다. 이들 합성어근만으로는 단어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에 명사화 접미사 '-이'가 통합됨으로써만이 자립적인 파생명사가 된다. 아니 합성어근이 아닌 단일어근에서도 접미사가 통합되지 않고서는 자립적인 단어 형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

(5) 가. 영수가 사과를 먹는다.

나. 영수는 사과를 먹음을 좋아한다.

다. 사과를 먹음이 굴을 먹음보다 좋다.

(5.가,나,다)는 문법적인 문장들이다. 만일 (5가)에서 굴절접사를 제거해 보자.

(6) 가' *영수가 사과를 먹-.10)

(6가')로서는 의사 전달이 되지 않는다. '먹-'이 실질형태소 (full morpheme, lexical morpheme)임은 틀림없으나 '사과를 먹-'만으로 의사전달이 되거나 단어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먹는다'는 (5가)에서 서술 동사이다. 서술동사는 서술력을 갖는다. 그것은 '먹-'에 접사 '-는다'가 통합됨으로써 가능하다. 서술력이란 그 문장에서 '풀이하는 힘'을 지닌다는 뜻이다. '먹는다'를 '먹-'으로 분석할 때 서술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는다'는 문법성만을 갖는 어미로서 서술력이 없다. 서술력이란 그 서술동사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문장의 어떤 자리에 오든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5가)에서 '먹-'이 어떠한 위치에 오든 서술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5. 나, 다)의 '먹음'에서의 '먹-'도 마찬가지다. 생성문법에서 동사가 어떠한 자리에 오든 내면에 주어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서술동사가 서술력을 지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먹-'은 접사 '-는다'가 붙음으로써 자립적인 단어로 형성된다.

위의 논의에서와 같이 단일어근 형태소 '먹-'에서처럼 합성어근 '물굽-, 땀받-'에서도 같은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합성어근 '물굽-, 땀받-'만으로 단어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접미사 '-이'가 통합되어서 '물굽이, 땀받이'의 파생 단어가 형성된다. 이러한 합성어근 '물굽-, 땀받-'은 형태론적으로 구성된 합성어근이 되었으나 그 본질은 통사론적 구조로 거슬러가야 해석이 가능해진다.

'먹-'이라는 단일 실질형태소에 어휘적 의미가 없는 문법형태소 (grammatical morpheme) '-는다'가 결합되어야 단어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어휘적 접사형태소(lexical morpheme)가 첨가되는 '물굽-이, 땀받-이'에서

10) 여기서는 굴절접사 '-는다'를 하나의 형태소로 다룬다. 물론 '먹었다'와 비교하면 '-는'은 '-었-'에 대응하는 하나의 형태소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먹었다, 먹었고, 먹었으니, 먹었더라도, 먹었으니까...' 등으로 '-었-'형태소는 개방어미로서 그 뒤에 '-다, -고, -으니, -더라도, -으니까'라는 폐쇄어미를 수반할 수 있으나 '-는'은 그 뒤에 폐쇄어미로 '-다' 외에는 다른 어미를 허용하지 않는다. *먹는고, *먹는으니, *먹는더라도, *먹는으니까'

접사 첨가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¹¹⁾

‘물굽이’는 <강물이 구부러져서 흐르는 곳>이며 ‘땀받이’는 <땀을 받아내려고 끼입는 속옷>의 뜻이다. 이와 같이 합성어근 ‘물굽-, 땀받-’은 접미사 ‘-이’와 통합하여 처소·사물명사를 파생시킨다.¹²⁾ 동사어간에 접미사 ‘-이’가 통합되어 파생명사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접미사 ‘-이’의 선행성분인 ‘물굽-, 땀받-’이 관형어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늙은-이, 젊은-이, 작은-아버지, 닭의-밑씻개, 닭의-장, 닭-죽, 서양-식(西洋式)’ 등의 단어에서 이들이 파생어인가 합성어인가를 논의한들 별다른 소득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더구나 파생접사가 첨가된 ‘물굽이, 땀받이’에서 형태소의 정체를 인위적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들 단어형성 설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들의 선행성분 ‘늙은-, 젊은-, 작은-...’들은 관형어적 구성을 이루는 통사적 원리가 작용하는 것으로만 보면 족하다고 본다. 파생어의 구성이 형태론적인 구성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은 통사론적 구성원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말의 수식적 구조는 ‘관형어+명사류, 부사어+동사류(형용사)’로서 이들이 통사론적 구성을 띠고 나타나는 것 외엔 다른 것이 없다. 결국 형태론적 구성도 단어 형성에 대한 통사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김창섭(1983:83-85)에서는 접미사 ‘-이, -음, -기’ 중에서 도구명사를 만드는 것은 ‘-이’에 의한 것이 제일 많고 유정명사는 접미사 ‘-이’로써 만들어 지는 것이 본래의 규칙이라고 그 예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도구명사 : 꽃뿔이, 뒷막이, 등받이, 물받이, 바람막이, 귀걸이, 벽걸이, 옷걸이. 손잡이, 벼훑이, 재떨이, 짐받이, 책꽂이. 유정명사 : 구두땀이, 냄마주이, 젓먹이, 고기잡이, 길잡이, 앞잡이, 바람잡이, 칼잡이, 키잡이, 무너리(←문열이), 속살이, 하루살이, 한해살이, 때밀이 등.

12) 명사화 파생접사 ‘-이, -음, -기’를 의미자질별로 빈도수를 조사한 통계가 있다. ‘행위’자질에는 ‘-이’가 44, ‘-음’이 85, ‘-기’가 53. ‘척도’자질로는 전항의 순서에 따라 10, 0, 8, ‘시간’자질 4, 0, 0, ‘행위인’자질 52, 0, 4, ‘사물’자질 105, 20, 13, ‘상태’자질은 0, 29, 0이다.

접미사의 발달을 기원적으로 살펴 ‘-이’접사는 삼인칭 통용대명사가 주격조사 ‘-이’로, 이것이 다시 파생접사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으)ㄴ’은 관형사형 ‘-ㄴ’에서 변화 발달했다는 설과 ‘삼다(爲)’의 어간 ‘삼’에서 ‘슴>슴>웅>-ㄴ>-음’으로 변화하여 발달했다는 설이 있다. ‘-기’는 용언의 체언형 ‘-기’와 동기원의 것으로서 불완전명사 ‘디’에서 추상화 과정으로 ‘디>기’의 변화를 거쳐 현대국어의 파생접사 기능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근(1996:75) ‘국어 통사적 접사의 수용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한글 231호 참조.

3. '명사/부사어+동사+접사(-이)'의 통사 원리적 접근

우리는 앞절에서 파생어형성에도 통사론적 원리가 적용된다고 상정했다. 우선 '주어 + 서술어(자동사)+접사'와 '목적어 + 서술어(타동사)+접사'의 대표적인 형인 '물굽이'와 '땀받이'를 대상으로 이 파생어들이 어떻게 통사론적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단어는 의미전달의 통사론적 단위이다. 언어는 의미전달을 위한 형식 매체라 할 수 있다. 의미내용이 있으면 이를 전달하는 음성형식이 있어야 한다. '물굽이'는 <강물이 구부러져 흐르는 곳>의 의미요, '땀받이'는 <땀을 받아내려고 끼입는 속옷>의 뜻이라 했다. 이러한 의미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물굽이', '땀받이'라는 파생어로 형성되었는가. 우리는 그 의미를 따라 '물굽이, 땀받이'가 모두 '물굽-이, 땀받-이'로 IC분석을 전제로 한 의미형성이라고 보았다. 형태소가 통합되어 단어를 형성시키는 것은 형태소분석을 전제하기도 한다. '물굽-이'는 <물굽는-곳 → 물굽어 흐르는-곳>이요, '물굽-'은 <물이 굽는- → 물이 굽어 흐르는 ->의 통사론적 구성으로부터 형태론적 구성으로 변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굽-'이란 합성어근은 통사론적인 문장 구조에서 구구조로 변모되고 다시 구구조에서 합성어로 변모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합성어근이라 생각된다. 결국 '물굽-'은 '물이 굽다'라는 '주어 + 서술어' 관계에서 주격조사와 서술어미의 소거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물굽이'에서와 같은 원리로서 '땀받이'는 '땀받-이'로 분석되며 <땀받는-속옷, 땀을 받아내는-속옷>의 의미라 볼 수 있다. '땀받-'은 '땀을 받다'라는 '목적어+서술어(타동사)'관계에서 목적격 조사와 서술어미의 소거로 형성되었으며 통사론적 구조에서부터 형태론적 구성으로 변모된 합성어근이라 생각된다. 결국 이는 '명사+동사+접미사'의 구조에서 합성어근인 '명사+동사'를 어휘부내에서의 합성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물굽이, 땀받이' 형은 그 구조가 [[명사+동사]_v+접미사]_N의 구조로서 선행요소인 [명사+동사]_v를 어휘부 내에 있는 합성동사로 취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명사+동사]_v의 합성동사 상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첫째는 [명사+동사]_v형이 동사의 중간범주로서 작용한다는 점ियो,

13) 김창섭 (1983:76-77)에서도 '해돋이'를 예로 들어 줄넘기형 합성명사에서 제 1 요소 x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해돋이' 명사라 하고 어근을 제외한 모든 x는 동사의 통사자질에 따라 선택된다고 하며 이는 결국 '주어 + 자동사' 또는 '보어 + 자동사'관계의 명사화로 규정하였다.

둘째는 동사구(vp)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위의 첫째의 논의에서 X-bar 형태론의 중간범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은 대상의 의미관계에 있는 통사부의 D-구조에서는 통사적 구성체를 이루지만 이것이 S-구조로의 핵이동을 거쳐 합성동사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¹⁴⁾ 이는 D-구조의 통사적 구성체와 S-구조의 합성동사 구성체가 V'로서 중간범주이던 것이 단어형성구조에 와서는 합성동사로 취급되어 이러한 합성동사가 접미사 '-이'에 의하여 파생어로 이룩되었다는 과정이 선명히 이해되지 않는다.

둘째의 논의는 '명사+동사'가 동사구(VP)로 작용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논의 대상인 '물굽이, 땀받이' 형에서 선행요소 '물굽-, 땀받-'이 형성되는 과정중 문장구조에서 형태론적 구성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중간범주인 동사구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들 선행요소들을 관형적 기능의 단어형성으로 상정한 터여서 이는 합성어근이 단일 동사어근과 같은 기능을 하는 통사론적 기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명사+동사]_v가 통사적 합성동사 어근이 되는 예는 매우 많다. 여기에서 선행요소 명사는 다음에 오는 동사의 자질에 따라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7) 명사+동사(주어+서술어)

- 가. 부아나다, 짓내나다, 뉘새나다, 소수나다, 수나다, 자귀나다, 귀나다, 시위나다, 쥐나다, 넌더리나다, 진절머리나다, 진저리나다, 멀미나다, 약비나다, 쌍심지나다, 동티나다, 조각나다, 생각나다, 바닥나다, 짜드락나다, 자국나다, 결판나다, 살판나다, 신나다, 벌나다, 날나다, 말나다, 주살나다, 배탈나다, 똥탈나다, 거덜나다, 요절나다, 철나다, 꺾나다, 이끌나다, 끝나다, 단물나다, 신물나다, 불나다, 혼쭐나다, 길나다, 큰일나다, 진땀나다, 바람나다, 째나다, 몸나다, 금나다, 이쁨나다, 틈나다, 트집나다, 집나다, 맛나다, 입덧나다, 뱀뱀나다, 뗏나다, 동강나다, 방나다, 끝장나다, 창나다, 곰팡나다, 땡나다, 성나다, 신명나다, 동나다, 난봉나다, 봉나다, 별쫓나다, 짜쫓나다, 불뵈나다, 끝나다.

14) 이에 대하여는 고재철(1992), 이제인(1988) 참조.

- 나. 더위들다, 눈독들다, 주눅들다, 가난들다, 오갈들다, 날들다, 칠들다, 가물들다, 물들다, 길들다, 바람들다, 밤들다, 귀잡들다, 잠들다, 뜸들다, 힘들다, 맛들다, 멋들다, 명들다, 끝병들다, 별들다, 정들다.

(8) 명사+타동사(목적어+서술어)

- 가. 땀받다, 이마받다, 채받다, 가루받다, 대받다, 뜻받다, 몸받다, 벌받다, 물받다, 바람받다, 말미받다, 불받다, 창받다, 덕받다, 정받다, 빗받다, 죄받다, 몹받다, 태받다, 웅석받다.
- 나. 막대잡다, 고래잡다, 매잡다, 경마잡다, 물잡다, 부채잡다, 소고잡다, 장구잡다, 살잡다, 상투잡다, 고기잡다, 덜미잡다, 북잡다, 손잡다, 어림잡다, 칼잡다, 줄잡다, 징잡다, 자리잡다, 초잡다, 책잡다, 트집잡다, 패잡다, 탈잡다, 흙잡다, 흥잡다.

(7. 가,나)는 합성동사의 어기로서 선행어기가 주어로 사용되는 예들이고 (8.가,나) 역시 합성동사로서 선행어기가 목적어로 사용된 예들이다.

(7. 가,나) 또는 (8. 가,나)는 동사의 어기앞에 명사어기가 선행함으로써 합성동사를 형성했는데 (7 가,나)에서는 명사어기가 동사어기 '-나(다), -들(다)'와 결합되어 합성동사를 형성하는 예만 보인 것이나 이들 외에도 '-가다(눈가다), -되다(약되다), -달다(애달다), -내리다(신내리다), -맞다(눈맞다), -먹다(좁먹다), -서다(장서다), -타다(속타다), -멀다(눈멀다), -묻다(때묻다), -쉬다(목쉬다), -꺼지다(눈꺼지다), -쏟다(녹쏟다) 등의 합성동사를 형성하는 다양한 예들이 있다.

(8. 가,나)에서도 타동사어기에 선행하는 명사어기로서 '-받(다), -잡(다)'의 예만 들어보였으나 이외에도 '-놓다(값놓다), -들다(시중들다), -떨다(궁상떨다), -떼다(시치미떼다), -맞다(서방맞다), -먹다(육먹다), -모르다(철모르다), -박다(못박다), -보다(맛보다), -부리다(웅석부리다), -쓰다(벌쓰다), -짓다(결정짓다), -주다(세주다), -치다(아우성치다), -타다(부정타다), -풀다(몸풀다) 등 많은 명사어기와 타동사어기가 결합되어 합성동사가 생성된다.¹⁵⁾

15) '명사 + 동사'로서 합성동사를 형성하는 예는 김정은 (1995:149-153) 참조.

위의 예들에서 ‘명사+자·타동사+접미사’는 [[명사+자·타동사]+접미사]의 구조로서 [[물+굽-]v+[이]]_N, [[땀+받-]v+[이]]_N의 형성층위를 지나는 것으로 우리는 상정한 바 있다. 이들의 선행어근인 [물+굽-]과 [땀+받-]은 ‘주어+서술어(자동사)’와 ‘목적어+서술어(타동사)’의 구조였다. 이들 모두를 합성어근으로 보는 것은 형태론적 구조의 단어형성 과정에서도 통사론적인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굽-이’와 ‘땀받-이’는 ‘더듬-이’ <절지동물의 감각기관> ‘지은-이’ <저자>와 같이 통사적 수식원리가 작용하여 선행요소는 관형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주어+서술어+접사’(해돋이)형의 형성구조와 ‘목적어+타동사+접미사’(돈벌이)형의 형성구조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시정곤(1994)을 들 수 있다. 그는 ‘해돋이’와 ‘돈벌이’를 각각 [[해돋]v+[이]]_N와 [[돈]v+[벌이]]_N의 형성구조로 보고 전자는 통사부에서 ‘해돋-’이 먼저 형성되고 다시 어휘부에서 접사 ‘-이’와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후자는 형성과정에서 [[돈]v+[벌이]]_N의 구조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의미해석에서 보면 ‘해돋이’형과 같은 의미구조를 가지므로 [[돈벌]+[이]]의 구조를 가져야 하므로 논리형태(Logical Form : LF)에서 접사이동을 상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돋이’형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나 ‘벌이’형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며 전자(해돋이)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후자(돈벌이)에서는 사잇소리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시정곤 1994:357-360)

우리의 논의는 시정곤(1994)의 전자(해돋이)형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 하나 후자(돈벌이)형에 대하여는 생각을 달리한다. 전자의 형성과정은 우리의 생각과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설명과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긍할 수 없는 점도 있으며 후자(돈벌이)형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한다. 우리는 ‘돈벌이’형의 형성과정은 [[돈벌]v+[이]]_N로서 전자 [[해돋]v+[이]]_N형과 같은 구성으로 본다. 또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하여도 우리는 생각이 같지 않다.

우리의 논의와 차이나는 점은 첫째 ‘돈벌이’형이 ‘해돋이’형과 의미구조가 같다고 하면서도 구조형성과정은 [[해돋][이]]와 [[돈][벌이]]로서 달리 분석하고 있으며 ‘돈벌이’형에서만 접사 이동을 상정하여 의미적으로는 ‘돈벌이’형도 결국 [[돈벌][이]]로서, 접사이동을 하지 않은 [[해돋][이]]형과 같아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벌이’의 독립성을 내세워 ‘[[돈][벌이]]’에서는 사잇소리가 일어나나 ‘[[해돋][이]]’형에서는 사잇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한 점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물굽이’형(위의 ‘해돋이’형에 해당)이나 ‘땀받

이'(위의 '돈벌이'형에 해당)형의 선행요소 '물굽-, 땀받-'등은 모두 통사론적 구조의 '주어+서술어(자동사), 목적어+서술어(타동사)'형에서 통사적 변모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통사적 합성동사로 간주한다. '*돋이'형은 독립성이 없으나 '벌이'형은 독립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직관으로서는 '벌이'형도 완전한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돋이'형에 비하면 '벌이'형은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벌이'의 사전적 의미는 <돈을 버는 일>로서 '[[돈을 벌다]+행위]'이다. 이 의미는 '돈'을 전제로 한 '목적어+타동사'의 구조를 지닌다. 그렇다면 '벌이'는 실제로 '돈벌이'를 의미한다.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완전한 독립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실제로 '목적어+타동사'의 구조를 갖는 다른 예들(땀)받이, (막대)잡이, (서방)맞이, (못)박이, (구두)닦이, (뚝)풀이, (꽃)꽂이, (먼지)털이, (소풍)놀이, (마개)뽑이 등의 후행요소 '동사어근+-이'로서는 자립성을 갖기란 어렵다. '벌이'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에 [[돈][벌이]]의 형성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위의 예들은 모두가 동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성립된 파생명사가 된 것이다. 이들이 명사라고 한다면 홀로 자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동사어근+-이'가 자립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기는 하다.

(9) 가. 먹이, 놀이, 물이, 구이(←굽+이)

나. 길이, 깊이, 넓이, 높이, 더위(←덥+이), 두께(←두껍+이), 무게(←무겁+이), 부피(←부프+이), 추위(←춡+이), 키(←크+이), 너비(←넓+이)

(9가)형에 비하여 (9나)형이 그 수가 많다. (9가)는 어간이 타동사이고 (9나)형은 형용사이다. (9가)형이 사용빈도가 적은 것은 이들 타동사 앞에 명사(목적어)를 전제로 하여 형성되기 때문으로 본다. (9나)형용사는 그러한 전제가 필요없기 때문에 자립성을 나타내는 파생명사가 생산성을 띤다고 본다. 많은 '동사어근+-이'의 형성이 파생어 형성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접한 명사(목적어)의 핵이 타동사의 핵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0) 낮을 깎다 → 낮깎다 → *낮깎이
마음을 놓다 → 마음놓다 → *마음놓이

마음을 먹다	→	마음먹다	→	*마음먹이
말뚝을 박다	→	말뚝박다	→	*말뚝박이
바가지를 굶다	→	바가지굶다	→	*바가지굶이
꿀탕을 먹다	→	꿀탕먹다	→	*꿀탕먹이
무릎을 꿇다	→	무릎꿇다	→	*무릎꿇이
죄를 받다	→	죄받다	→	*죄받이
책을 잡다	→	책잡다	→	*책잡이
닭을 쫓다	→	닭쫓다	→	*닭쫓이
손을 들다	→	손들다	→	*손들이
돈을 넣다	→	돈넣다	→	*돈넣이
가방을 들다	→	가방들다	→	*가방들이
책을 읽다	→	책읽다	→	*책읽이
집을 짓다	→	집짓다	→	*집짓이
공을 집다	→	공집다	→	*공집이
피를 넣다	→	피넣다	→	*피넣이

(10)에서 인접한 명사(목적어) 핵의 의미역이 대상(Theme)일 때 그 명사의 핵이 의미적 결합을 위해 인접하는 타동사의 핵으로 이동하여 합성동사가 형성된다. 합성동사를 이룬 뒤에는 명사화가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의미적 단절 현상이 심하여 그러한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며 파생어 형성이 비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¹⁶⁾

‘돈벌이’를 [[돈]+[벌이]]로 분석했을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해돋]-[이]]로 분석했을 때에 비하여 ‘돈벌-’과 ‘해돋-’의 합성어근 중 어느쪽이 밀착도가 강한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후자는 [[해가 돋다]+행위]로서 주술구성으로 이심구조(exocentric construction)이기에 [[돈을 벌다]+행위]인 목술구성에 비하여 후자가 밀착도가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밀착도가 강한 ‘돈벌이’는 ‘돈-벌이’로 구성되고 약한 ‘해돋이’는 ‘해돋-이’로 구성되었다고 하

16) 고영근(1989 : 504-505)은 실질형태소의 용언적 어근에 접미사 ‘-이’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것들은 의존성을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접미사”로 처리하고 ‘-건이, -걸이, -꽃이, -낱이, -뜰이, -풀이, -박이, -뽕이, -불이, -살이, -얹이, -풀이’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 접미사성 전성명사가 통합되어 형성된 단어는 완전한 합성어가 아닌 ‘준합성어’ 또는 ‘준파생어’로 보아야 할 것이라 하고 ‘뽕-뜰이, 가을-건이’ 등의 후행성분들이 의존성을 띠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경계이론(boundary theory)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경계이론은 단어사이의 긴밀성과 관계가 있다. 경계이론은 복합어의 내부구조에서 ‘단어경계>형태소경계>접사경계’ 순으로 점점 경계약화 현상이 일어나 선후행 성분 사이의 이완성이 사라지면서 긴밀성이 강화되는 것인데 ‘목적어+타동사’(돈벌이)의 구조는 ‘주어+서술어’(해돋이)구조보다 긴밀성이 더욱 강하므로 [[돈][벌이]]의 형성구조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경계이론은 사잇소리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벌이’가 독립성이 있고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돈벌이’는 [[돈][벌이]]로 형성되었다고 보고 사잇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돋이’는 [[해돋][이]]로 형성되었다고 본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의 논의형인 ‘물 굽이’ ‘땀받이’에서는 오히려 전자가 [물+굽이][물꾸비]('스'은 사잇소리표기)에서는 사잇소리가 일어나지만 후자인 ‘땀받이[땀바지]’로서 사잇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전자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주술구성의 이심구조가 통사적 구성의 파격을 초래하므로 사이시옷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잇소리가 의미론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두 요소를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 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임흥빈, 1981 : 17)¹⁷⁾

17) 오정란(1988)에서는 추상적인 복합격(abstract compositive case : ACC)과 경계약화규칙(boundary weakening rule : BWR)의 이론을 적용하여 사이시옷을 경우화로 설명하고 있다. 사이시옷 개입환경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가. 경계약화규칙(boundary weakening rule : BWR)

$$\# \rightarrow + / C \quad \left. \begin{array}{c} [+ lax] \\ \end{array} \right\} N_1 \quad \left\{ \begin{array}{c} -ACC \\ [Gen.] \quad N_2 \\ [Loc.] \\ [Ben.] \end{array} \right.$$

(condition : Gen. ACC demands for [-animate] of N_1)

나. [?]삽입 ([?] insert)

$$\text{insert } [?] / \quad N_1 + \text{---} + N_2 \quad \left[\begin{array}{c} X \\ \end{array} \right.$$

다. 후두음 확산 (laryngeal spread : LS) 오정란(1988 : 191)

$$\begin{array}{c} [?] \\ | \\ \vdots \\ X \quad X \end{array}$$

이와 관련하여 오정란(1988)은 경우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와 경우화가 일어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전자의 하나로서 파생명사로 이루어져서 후행어가 서술어자

우리의 생각으로 ‘물굽이’, ‘땀받이’는 ‘[[물굽][이]], [[땀받][이]]’로 형성되었다고 전술했다. 이는 통사적인 구성을 따른 것으로 의미해석을 위해 재분석이나 접사이동과 같은 장치를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안상철(1985)은 ‘해돋이’의 형성과정을 논의하면서 ‘돋이’와 같은 파생이 이루어진 뒤 다시 ‘해-돋이’와 같은 복합이 이루어지며 재분석을 통해 ‘해돋-이’와 같은 형이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물굽][이]]’형과 그 형성구조가 같아진 것이므로 처음부터 ‘해돋-이’로 직소분석을 하면 재분석이라는 번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다.

또한, 시정곤(1994)에서는 ‘돈벌이’가 [[돈][벌이]]의 구조이지만 의미해석을 위해 L.F(논리형태)에서 접사이동을 상정하여 [[돈벌][이]]의 구조를 지녀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도 형태부와 통사부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통사적 절차를 따라 처음부터 [[돈벌][이]]의 구성으로 보아 ‘돈벌-’이란 합성어근이 형성되고 여기에 접사 ‘-이’가 통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면 접사이동을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어가 첨가어적 특성으로 인해 하나의 어근형태에 다른 형태가 첨가됨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변화가 생긴다. 이 때에 첨가된 형태는 무의미적인 것은 결코 없다. 특히 국어에서 접미사의 첨가는 아주 빈번하다. [명사+동사+접미사‘-이’]의 구조로 이루어진 ‘물굽이, 땀받이’는 [명사+동사]구조인 합성동사와 [동사+접미사‘-이’]구조인 명사파생어가 독립성의 유무로 인해 계층구조상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형태론에서도 단어 형성에 대한 통사론적 원리 적용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명사+동사]구성은 합성동사를 형성하고 [동사+접미사 ‘-이’]구성은 파생 명사를 형성하나 그것들은 실제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 그리고 자립적인 것과 의존적인 것들이 있다. 그리하여 형태론은 문법구조에서 개별적인 특이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어형성에 있어 합성어 형성은 ‘부가-핵’ 관계를 지니며 파생어 형성은 ‘핵-보어’ 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¹⁸⁾ 위의 두 가지 형성구조가 별도로

격으로 선행어와 주격, 목적격, 도구격과 결합된 단어가 있다고 하고 ‘해돋이, 물받이, 장죽입’을 예로 들었으나 사잇소리가 나타나는 ‘물굽이, 돈벌이’는 이 규정으로 해명되지 않는다.

18) 김인곤(1995)은 단어형성에서 핵계층이론과 의미역이론을 원용하여 X-bar 이론을 제시하고 파생어 형성은 ‘핵-보어’관계를 지니며 합성어 형성은 ‘부가-핵’관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물굽이, 땀받이’형 단어형성 구조에서는 ‘명사+동사’에 의한 합성동사 범주는 (10)에 보인 많은 예들처럼 동사(V)형의 통사 범주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성동사에 접미사 ‘-이’의 결합으로 파생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므로 ‘물굽이, 땀받이’같은 단어형성은 문법체계내에서 합성동사 형성이 통사부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파생명사 형성이 어휘부와 관련되어 나타나는데 어근개념에 대한 통사론적 구성원리는 형태론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앞에서 우리는 단어형성에 있어 ‘명사+자·타동사+접사’-이’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것을 ‘물굽이’와 ‘땀받이’로 제시하고 그 형성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단어구조는 결국 ‘[[물굽][이]], [[땀받][이]]’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합성이어 형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러한 합성이어에 접미사 ‘-이’의 통합으로 최종 단어는 파생명사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단어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데는 형태론적 단어형성에서도 통사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가설 아래에서 논의된 것이었다.

‘명사+자·타동사’에서 합성동사가 먼저 이루어진다. 이는 문장형식에서 통사적 절차를 거쳐 구구조(phrase structure)로 변모되고 구구조에서 합성이어로 굳어진다는 원리로서 합성이어는 기저구조에서 일정한 통사적 절차를 거쳐 형성된다는 가설이었다. 그리하여 ‘물굽이, 땀받이’는 ‘물이 굽다→물굽다→물 굽- → 물굽-’으로 합성이어화되고 후자는 ‘땀을 받다’라는 구구조가 역시 위와 같은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합성화된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형성된 합성동사 ‘물굽-, 땀받-’은 다시 접미사 ‘-이’와 통합함으로써 ‘물굽이, 땀받이’의 파생명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렇게 통사적 원리를 단어형성에 적용해 본 결과 ‘[[물굽][이]], [[땀받][이]]’로의 직소(IC)분석이나 ‘[[물][굽이]], [[땀][받이]]’로의 분석이냐의 논란을 해소하고 재분석이나 접사 이동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은 물론 이러한 파생명사의 의미를 통사범주의 관점에서 본

를 갖는다고 말하고 합성이어는 선행하는 명사가 동사에 대하여 대상의 의미관계를 갖는 부가 수식구조라고 설명하였다.

파생어의 의미에 따라 형태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다.

‘굽이, 받이, 벌이’ 등 ‘동사어근+접사“-이”의 구조가 선행요소인 명사와 통합되어 파생어를 형성하는 과정이란 다분히 개별적인 것이 많고 사잇소리 현상에서도 음운론적 현상 아니면 통사적 구조의 파격 때문에 사잇소리가 개입하는 것이므로 ‘굽이, 받이, 벌이’형의 독립성 여부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첨가어 성질을 갖는 우리말에서 ‘먹음직스럽기도하다’와 같은 단어형성에서는 어근에 접미사가 차례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에서와 같은 시원스런 설명이 되기는 어려우나 여기에서도 어근개념이 적용되어 통사적 구성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고 싶다. ‘먹어 보다’라는 ‘본동사+보조동사’구문에서도 의미의 핵심은 선행어 ‘먹어’에 있으며 후행어 ‘보다’에서 중심의미는 사라진 채 <試行>정도의 변이된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여기서도 ‘부사어+동사’라는 통사구성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진식(1996), 「국어형태론 연구」, 원광대 출판국.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 출판부.
 김계곤(1969), 「현대국어 조어법 연구」, 인천교대 논문집 4.
 김민수 외(1992),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김석득(1989), 「구성요소의 뜻과 총합체의 뜻과의 관계」, 동방학지 제 59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김인균(1995), 「국어파생어에 대한 형태·통사론적 연구」, 서강대 대학원.
 김정은(1995), 「국어 단어 형성법 연구」, 박이정.
 김창섭(1983), 「줄넘기’와 ‘갈림길’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국어학 12.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국어학총서 18, 태학사.
 시정근(1994), 「해돋이’와 ‘돈벌이’형의 단어형성」, 한국어학 1, 한국어학연구회.
 오정란(1988),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한신문화사.
 유재원(1985), 「우리말 역순사전」, 정음사.
 이석주(1992), 「국어형태론」, 한샘.

- 이울환 외(1984), 「한국어 문법론」, 개문사.
- 이익섭(1965), 국어복합명사의 IC분석, 국어국문학 30.
- 임홍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제25권 1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 정원수(1991), 국어의 단어 형성 연구, 충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 하치근(1996), 국어통사론적 접사의 수용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한글 231호.
- 안상철(1985), The Interplay of Phonology and Morphology in Korean, Univ. of Illinois of Urbana, 한신문화사.
- Chafe(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